

더불어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사] 대한크리켓협회와 정책 협약 체결

- 정치권 -체육계가 함께 모인 정책협약 통해 다문화 정책 실현하는 기반 마련

-양문석 의원, "다문화 인기스포츠인 크리켓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이 더불어 잘사는 포용 사회 실현해야!"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 는 오는 5월 14일 (사) 대한크리켓협회(회장 김남기) 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크리켓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크리켓은 작은 공과 배트만으로 즐길 수 있어 장비나 장소의 제약이 적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종교·언어·인종을 초월해 오늘날 대표적인 다문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정책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양문석 위원장이 참석하며, (사) 대한크리켓협회에서는 김남기 회장을 비롯해 나시르 칸 부회장, 전순명 부회장, 류효상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 1 -

- 협약식에 함께한 대한크리켓협회 김남기 회장은 "크리켓 월드컵은 연간 22억명이 시청할 정도로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주말이면 크리켓경기를 하기 위해 국내에 유일한 경기장인 연희크리켓경기장을 방문한다."며 크리켓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이어 양 위원장은 “크리켓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스포츠로, 소외된 이주민과 청소년을 사회와 연결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정치권과 체육계가 함께한 이번 정책협약은 다문화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체육프로그램 확대 및 크리켓 종목 육성을 위해 ▲생활체육 및 엘리트 크리켓 인프라 확대 ▲유소년 크리켓 리그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인재 육성 ▲다문화가정 자녀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크리켓 프로그램 확대 ▲크리켓을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공동추진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협력한 국제 친선 대회 개최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 아울러, 이번 협약은 스포츠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 다문화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문화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첨부파일

1. (사) 대한크리켓협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양문석 위원장
(출처 : 양문석 의원실)

